

## 인터넷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적자본 이론과 자기표현 이론을 중심으로

한진우<sup>a</sup>, 유철우<sup>a</sup>, 최영찬<sup>a</sup>

<sup>a</sup> Major of Regional Information,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1-2-880-4747, Fax: +1-2-873-5080, E-mail: handream@snu.ac.kr

Tel: +1-2-880-4747, Fax: +1-2-873-5080, E-mail: userid7@snu.ac.kr

Tel: +1-2-880-4747, Fax: +1-2-873-5080, E-mail: aggi@snu.ac.kr

###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과 자기표현 이론(Self Expression Theory)을 중심으로, 인터넷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전체 108명의 표본을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혁신성은 자기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자본과 자기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사회적자본과 자기표현은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 Keywords:

지식공유, 사회적자본, 자기표현, 개인특성

### 서론

지식공유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 지식에 대한 접근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 지식의 이전 및 교환을 강조하는 관점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김도연 외1인, 2007). 기존의 연구들은 지식공유를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KMS는 기업내의 지식공유 매체로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내의 KMS 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도 지식공유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효과나 활동량이 적은 KMS보다 인터넷 상의 지식공유는 단순한 생활상식에서부터 전문지식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네이버의 지식인파 같은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게시판이 지식공유의 장으로도 쓰이고 있다. 따라서 지식공유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지식공유에 대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공유를 일종의 역할외(Extra-role)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지식공유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을 위해서 개인특성, 정체성이론을 사용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지식공유를 설명한 사회적자본 이론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이론을 도입하여 관계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 또한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구조모형 설정과 측정도구 선정이 이뤄지며 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이 제시된다.

### 이론적 프레임워크

인터넷 공간에서의 지식 공유는 사용자들에게 역할외(Extra-role) 행동으로 시민행동(Citizenship Behavior)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이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동료들을 자원하여 도와주고, 정보나 자원들을 공유, 기증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조직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할을 초월하여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조직의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행해지는 역할외 행동이다(Brief and Motowidlo, 1986).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전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이러한 행동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이 증가할수록 조직내 구성원간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roth(2005)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조직시민행동을 고객에까지 확장하여 특징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서 기존의 조직시민행동은 종업원 행동 가운데서도 직무의 행동에 속하게 되며, 고객들의 역할외 행동의 경우 고객시민행동으로 개념화된다. 고객시민행동(Customer Citizenship Behavior)은 고객이 꼭 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고객의 호의나 다른 동기에

의해서 기업이나 다른 고객에 베풀어지는 혜택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의 공유는 고객시민 행동에 속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Mael and Ashforth(199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은 시민행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다. 사회적 정체성은 자아개념(Self-concept)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아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느낌으로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사회적 정체성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정체성이 높은 개인은 개인의 이미지와 특성, 특징에 따라 자신을 범주화하게 하고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며, 사회적 정체성이 높은 개인은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자아개념을 나타내게 된다(Tuner et al., 1987).

선행연구들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이 지식공유라는 시민행동을 일으키는 것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와 시민행동(Citizenship Behavior)을 중심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개인특성, 사회적/개인적 정체성, 시민행동으로 이어지는 개념적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여 지식공유를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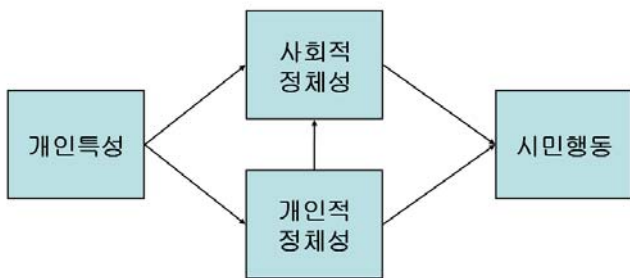


그림 1. 개념적 프레임워크

## 문헌연구

### 개인혁신성(Personal Innovativeness)

혁신성은 특정 개인이 사회시스템 내에서 다른 소비자들에 앞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채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ger, 1995). 또한 Midgely and Dowling(1978)은 개인 혁신성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고, 타인이 전달한 경험과 관계없이 혁신의사결정을 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Agarwal and Prasad(1998)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도해 보려는 개인의 의지로 정의하였다. 개인 혁신성은 개인의 다양한 의사결정 및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혁신적 경향이 있는 개인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체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 상황하에서 지식공유와 같은 역할의 행동들은 개인의 혁신적 성향이 더 필요할 것이다. 혁신성이 높은 행위자는 자신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동기가 강할 것이다. 선행연구들도 개인혁신성이 자기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준 외2인, 2008). 따라서 인터넷 지식공유라는 상황하에서도 개인의 혁신성은 자기표현과 같은 개인적 정체성 측면과 사회적 자본과 같은 사회적 정체성 측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1: 개인혁신성은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2: 개인혁신성은 사회적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정보기술 수용 후 주관적 지각 형성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된다 (Bandura, 1977). 즉,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 (Bandura, 1986). Compeau and Higgins(1995)는 사회적 인지 이론을 정보시스템 분야에 적용하여 컴퓨터 자기효능감 (Computer Self-Efficacy)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단순히 컴퓨터 기능에 대한 숙달 정도가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능력을 의미한다. 컴퓨터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훈련 상황에 적용되어 왔으며(Gist et al., 1989; Marakas et al., 1998), 수용 상황(Taylor and Todd, 1995; Venkatesh and Davis, 1996)이나 수용 후 상황(Compeau and Higgins, 1995; Agarwal and Karahanna, 2000)에도 적용되었다.

개인들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활동을 하거나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숙련되었다고 느끼면, 자신을 표현함에 강한 동기부여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동기부여 단독으로는 의도를 예측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동기부여에 자기효능감이 더해지면 의도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Ajzen, 2002). 사용자들이 자신감이 높으면 자기 효능감은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도 따라 높아지며 자기표현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White, 1959). 그러므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표현욕구도 따라서 강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상 공간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빈번해지고 사회적 정체성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자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안한다.

H3: 자기효능감은 자기표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H4: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자본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 자기표현(Self Expression)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행위(Leary, 1995)로, 자기표현 노력은 자신, 환경/상황, 그리고 타인의 평가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타인이 지각하게 될 자신의 인상/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Schlenker et al., 1996; Schlenker et al., 1994). 개인들은 가치 있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Dominick, 1999),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자기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일수록 자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더 많이 역할의 행동을 하게 된다(Leary and Kowalski, 1990).

또한 자기표현이 높은 개인일수록 타인의 평가와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시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Dutton and Dukerich, (1991)의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간의 접촉 빈도는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자기표현이 높을수록 집단 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으로 지식공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5: 자기표현은 지식공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H6: 자기표현은 사회적자본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은 특정 경제주체가 자신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접근/확보할 수 있는, 자신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장용선 외 1인, 2006). 사회적 자본이란 구조 내에 개인이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구조의 측면이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자본처럼 생산적이며, 그것이 없다면 불가능한 개인의 특정 목적달성을 가능하게 해준다(Coleman, 1988).

사회적 자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감, 일체감, 효과성을 높여주는 심리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Ibarra, 1995). 네트워크 연구의 주요 가정은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가 구성원들의 개

인적 속성보다 사회시스템을 보다 강력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네트워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패턴을 고려함으로써 조직현상이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Morrison, 2002).

연구자들은 상이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크게 구조, 관계, 인지 등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조차원은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패턴에 초점을 둔다(Nahapiet and Ghoshal, 1998; Inkpen and Tsang, 2005). 네트워크의 구조차원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이들 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구조차원의 네트워크에는 네트워크의 강도가 있다. 네트워크 연결의 강도는 친밀감, 정서적 강도, 접촉의 빈도와 관계의 지속 정도, 사회적 동질성, 등이 있다 (Marsden and Campbell, 1984). 둘째, 네트워크의 범위

는 하나의 네트워크 단위가 다른 단위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서 정의한다(Ahuja, 2000). 셋째, 네트워크 밀도(network density)는 가능한 접촉범위 대상에서 실제로 접촉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한다(Ibarra, 1995, Morrison, 2002). 넷째, 네트워크의 중심성은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중심성의 함수로서 개인의 중심성을 지표화할 수 있다. 개개인은 중심성이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높일 수 있다(Ibarra, 1992).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특정인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구축한 인적 관계의 성격으로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Nahapiet and Ghoshal, 1998; Inkpen and Tsang, 2005). 관계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의 관계적 배태성 (Relational Embeddedness)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이는 행위자들간의 양자(dyad)적 관계에 의한 배태성을 말하는 것이다(박찬웅, 2000). 따라서 관계차원의 사회적 자본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특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관계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신뢰, 규범, 의무 혹은 기대 등이 있다(Nahapiet and Ghoshal, 1998). 그 중에서 신뢰는 지식활동과 관련이 깊으며, 관계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Inkpen and Tsang, 2005),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중에서 신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지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유대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 언어와 코드를 포함한다(Nahapiet and Ghoshal, 1998; Inkpen and Tsang, 2005). 조직구성원들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 동일한 지각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의 장애를 피할 수 있고, 아이디어 혹은 교환기회를 보다 자유롭게 해준다.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은 자원의 교환이나 결합의 잠재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결과적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조직구성원 들은 자원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Tsai and Ghoshal, 1998).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자본 의 3가지 측면인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성격들이 강할 때 지식 공유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이 공유되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그 공동체의 구성원간의 신뢰가 강할수록,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을수록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동기가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7: 사회적자본은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연구방법론

###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제안된 가설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혁신성과 자기효능감, 자기표현, 사회적자본, 지식공유참여의 인과관계를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으로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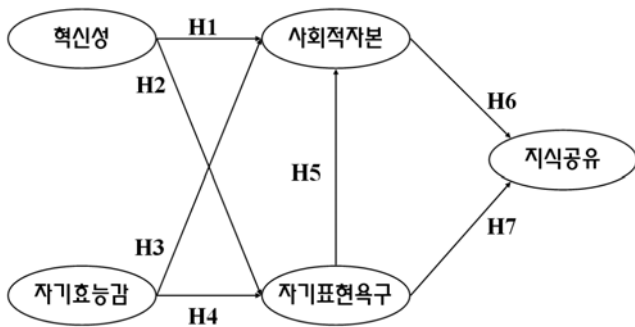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그림 2>와 같이 제안된 연구모형의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또한 타당한 설문문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해 Joseph and Vyas(1984)의 연구를 사용하였고, 자기효능감을 위한 측정항목은 Compeau and Higgins(1995)의 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자기표현은 Bhattacharya et al.(1995),

사회적 자본은 Wasko and Faraj(200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내용	측정항목
혁신성	새로운 생각을 잘 받아들이며 혁신 의사결정 정도	새로운시도선호(IN1)
		색다른것선호(IN2)
자기 효능감	인터넷 상에서 지식 공유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인터넷상표현능력(SE1)
		지식공유용이정도(SE2)
자기 표현	지식공유를 통해 자기의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욕구	이미지표현선호(EX1)
		자아표현선호(EX2)
		원하는것표현정도(EX3)
사회적 자본	인터넷 상에서 타사용자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는 자원	네트워크강도(SC1)
		네트워크빈도(SC2)
		타사용자신뢰(SC3)
		지식공유책임감(SC4)
		사용자간의합의(SC5)
		사용자간의공유점(SC6)
지식 공유	인터넷을 통한 지식 공유의도	지식공유의지(KS1)
		지식공유선호(KS2)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모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08년 4월에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에 111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무응답과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10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은 네이버 지식인이나 다른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한 지식공유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4.3세이며 대학원생이 72명 (66.7%), 대학생이 36명 (33.3%)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표본통계량을 포함하여 서술통계량, 신뢰성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및 각 요인의 공변량 구조분석에는 구조방정식 모델인 AMOS 7.0을 활용하였다.

## 결과

###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즉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롬바흐 알파 값을 조사하였다. <표 2>은 각 잠재 변수와 측정변수에 있어서의 크롬바흐 알파 값을

나타내고 있다. 크롬바흐 알파 값 검증한 결과 모든 값은 기준 값인 0.7보다 높게 측정 됨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역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도 모두 기준치 0.5를 넘음으로써 측정도구가 적절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성개념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요인분석은 변수와 요인간의 사전지식이나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가설구조를 확인한다. 확인요인분석을 통해서 요인과 측정변수 사이의 이론적인 배경의 논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한 확인요인분석은 다변량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을 이용하였다. 확인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이기 때문에 개념타당성 (Construct Validity)이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GFI (Goodness-of-Fit Index: 0.9 이상 바람직함),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 바람직함),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이하가 바람직함),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이 바람직함), CFI(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이 바람직함) 등을 이용하였다. AGFI값이 권장수준에 미달하여 문제가 있지만, 다른 지수들은 권장수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각 구성개념의 AVE값이 0.5 이상이기 때문에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개념의 신뢰도가 0.7 이상이어서 수렴타당성 또는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전체 개념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

	Estimate	S.E.	Alpha	C.R.	AVE
IN1	0.770	0.448	0.796	0.725	0.610
IN2	0.769	0.450			
SE1	0.866	0.264	0.851	0.890	0.866
SE2	0.917	0.128			
EX1	0.967	0.078	0.961	0.951	0.946
EX2	0.953	0.130			
EX3	0.915	0.206			
SC1	0.672	0.576	0.807	0.816	0.664
SC2	0.665	0.608			
SC3	0.491	0.899			
SC4	0.657	0.422			
SC5	0.813	0.355			
SC6	0.632	0.569			
KS1	0.728	0.473	0.767	0.754	0.665
KS2	0.867	0.355			

$\chi^2=90.5(p=0.08)$ ,  $df=73$ ,  $GFI=0.91$ ,  
 $AGFI=0.85$ ,  $NFI=0.92$ ,  $NNFI=0.97$ ,  
 $CFI=0.96$ ,  $RMR=0.05$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VE 제곱근분석을 수행하였다. AVE분석은 각 잠재변수의 AVE의 제곱근의 값과 각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그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간의 모든 상관계수보다 클 경우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Fornell and Lacker, 198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AVE 제곱근 값을 구했을 때 각 AVE 제곱근 값이 인접한 종과 횡의 다른 상관계수들보다 크므로 본 연구의 측정 도구의 판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항목의 판별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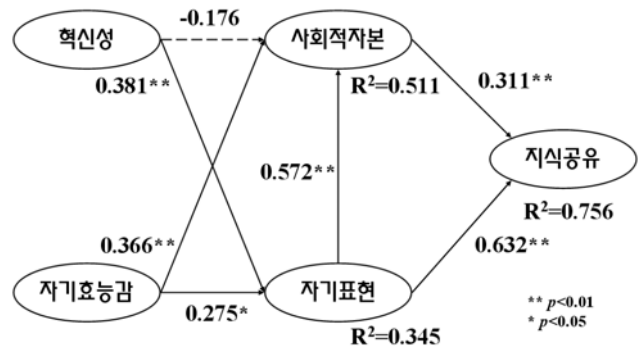
	IN	SE	EX	SC	KS
IN	0.78				
SE	0.44	0.93			
EX	0.45	0.44	0.97		
SC	0.32	0.47	0.62	0.82	
KS	0.28	0.40	0.74	0.60	0.82
평균	3.43	2.97	2.53	2.78	2.84
표준편차	0.92	0.84	1.01	0.75	0.96

\*대각선 요소: AVE의 제곱근

\*대각선의 요소: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에 관한 검정을 위해서 앞의 종합척도에 의한 구성개념간의 상관행렬 자료를 이용한 인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3>과 같은 적합 지수를 얻었다. AGFI가 권장수준에 미달하지만 다른 지수들이 대부분 권장수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chi^2=75.7(p=0.36)$ ,  $df=72$ ,  $GFI=0.92$ ,  $AGFI=0.87$ ,  
 $NFI=0.93$ ,  $NNFI=0.99$ ,  $CFI=0.99$ ,  $RMR=0.05$

### 그림 3. 연구모형 검증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인 혁신성, 자기효능감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기술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강할수록 자기표현을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델 검증 결과는 자기표현은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참여에 0.572(사회적자본), 0.632(지식공유참여)의 높은 경로 계수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존에 지식공유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사회적 자본에 자기표현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직접적으로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모델은 자기표현, 사회적 자본이 각각 선행요인에 의해 34.5%, 51.1% 분산이 설명되고 있으며, 지식 공유참여는 자기표현과 사회적 자본에 의해 75.6%의 분산이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은 가설 검증 결과이다.

표 4. 가설 검증결과

	경로	Estimate	t 값	p 값	채택
H1	혁신성 →사회적자본	-0.176	-1.17	0.24	기각
H2	혁신성 →자기표현	0.381	2.73	0.01	채택
H3	자기효능감 →사회적자본	0.366	2.69	0.01	채택
H4	자기효능감 →자기표현	0.275	2.18	0.03	채택
H5	자기표현 →사회적자본	0.633	4.34	0.00	채택
H6	사회적자본 →지식공유	0.311	2.73	0.01	채택
H7	자기표현 →지식공유	0.632	6.16	0.00	채택

###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자본 이론과 자기표현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자본과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로는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조모형으로 제안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혁신성에서 사회적자본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설을 제외한 모든 가설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표현 이론이 사회적자본 이론과 함께 지식공유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의 경우, 조직 내에서, 지식 본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공유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지식공유가 자기표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개인특성이 직접적으로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쳤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혁신성,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수들이 사회적 자본과 자기표현을 통해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모형에서 나타난 지식공유의 높은 R<sup>2</sup>값(0.756)은 이 모형의 적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실무적 시사점을 보자면, 자기표현이 지식공유에 높은 경로계수(0.632)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식공유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시스템의 특성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면 사용자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지식공유가 더 가속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먼저 샘플수가 충분히 크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령층도 20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알아낼 수 없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2]Compeau, D.R. and Higgins, C.A.(1995). "Computer Self-efficacy: Development of a Measure and Initial Test," MIS Quarterly, Vol. 19, pp. 189-211.
- [3]Mael, F., and Ashforth, B.E. "Alumni and their Alma Mater: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992, pp 103-123.
- [4]White, R.W.(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Vol. 66, pp. 297-331.
- ...

\*페이지 초과로 생략함.